

독일 통일 및 동독연구의 담론들:

20년 후의 비판적 회고 *

라이 콜모르겐 (필리츠 대학)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통일 독일에서 이루어진 통일과 관련된 사회학적 담론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이다. 통일과 그 결과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다양한 이론들이 제기되고, 연구되었다. 처음 3년 동안 민주화, 국가변혁, 경제 위기 등의 문제가 동독에서 주된 연구 분야로서 지배적이었다면, 1993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동독에서의 공식적 혹은 비 공식적 제도 변화,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의 재정 및 인력상의 이전, 독-독 불평등, 문화적 소외현상 등이 그 중심을 구성하였다. 그 이후 2010년까지는 주로 혁신, 지속성, 인구, 시민사회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의식들 하에서 경제, 민주 등의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중심 연구 분야로 되돌아 왔다. 오늘날까지도 전 동독대학의 교수 중 동독 출신은 여전히 5%가 채 되지 못한다. 동독 및 통일 연구는, 전체 학문분야에서 대학연구가 갖는 지도적 기능으로 인해, 그 핵심에 있어 서독의 학문 엘리트들에 의한 헤게모니적 지배 하에 놓여있다. 서독 헤게모니가 보여준 분열은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을 거쳐 각 입장의 양극화와 고착화를 초래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동독에 대한 서독인들의 편협한 시각으로 전개·지배되고 있다. 곧, 이러한 분열과 편협적인 헤게모니는 연구의 울타리 속에서 점차적으로 고립을 촉진시키는 근본 기저로 작용하였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중요한 이론-개념이나 가치 인정적 측면들(권력, 담론, 대안적 근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혹은 개인사)을 사장시키고, 장기적으로 주변화로 나가며,

* 독일어 원제는 “Diskurse der Vereinigungs und Ostdeutschlandforschung: Ein Kritischer Rückblick nach 20 Jahren”이고, 이진일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번역함.

보다 복합적인 통찰의 기회와 잠재적인 학문혁신의 기회를 상실하도록 만든다. 열린 변화와 통일과정의 사회과학적 공동 작업이라는 기회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주제어: 통일, 담론, 사회학 연구, 동독, 근대화

1990년 이후 독일통일 및 동독연구의 담론에 대하여 연구하고, 돌이켜 분석하며, 평가하는 작업¹⁾에는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 그 중 의미 있는 접근의 하나는 우선, 지난 20년 동안 어떤 주제 분야가 경험적 연구를 통해 다루어졌는가라는 문제일 것이다.

I. 경험적 연구 분야

통일이 된지 채 몇 년도 안 되어 이미 동독의 전환과 독일통일 문제는 독일 사회과학 역사에서 아마도 가장 잘 정리되고, 가장 집중적으로 경험적 분석이 이루어진 연구대상을 대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²⁾

1) 콜모르겐(Kollmorgen)의 다음 글들에는 본 발표가 다루는 모든 측면들에 대한 더 상세한 경험적 연구결과, 개념 및 사회정책상의 심화된 내용들이 들어있다. Raj Kollmorgen, "Das Ende Ostdeutschlands? Zeiten und Perspektiven eines Forschungsgegenstandes," *Berliner Debatte Initial*, 14. Jg. (2), 2003; "Zwischen nachholender Modernisierung und ostdeutschem Avantgardismus. Ostdeutschland und deutsche Einheit im Diskurs der Sozialwissenschaften," in Raj Kollmorgen, Frank Thomas Koch, and Hans-Liudger Dienel, eds., *Diskurse der deutschen Einheit. Kritik und Alternativen* (Wiesbaden: VS Verlag, 2011a); "Ostdeutschland und Theorien des Institutionenwandels," in Astrid Lorenz, ed., *Ostdeutschland und die Sozialwissenschaften. Bilanz und Perspektiven* (Wiesbaden: Barbara Budrich, 2011b).

2) Stefan Hradil, "Die Transformation der Transformationsforschung," *Berliner Journal für Soziologie* 6. Jg. (3), 1996.

오늘날까지 수행되고 있는 사회 연구의 내용적 폭은 사실상 사회적인 것의 거의 모든 단위, 범위, 차원을 포괄하고 있다. 이미 1990년대 말에 이르면 사실상 경험적 연구의 빈 분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³⁾ 좀더 구체적으로는 지난 몇 년 동안(2004년~2010년) (1) 노동시장, 경영, 혁신 등의 분야에서의 동력뿐 아니라 성장·경제적 지원·수입의 증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설정이 1/3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주제 분야를 대표하고 있었다. 전체 프로젝트의 약 10~15%를 차지하는 분야로는 (2) 정치와 행정, (3) 사회구조와 사회적 불평등, (4) 도시 및 지역 발전, (5) 교육과 학문, (6) 사회문화(가치와 규범, 일상생활문화, 개인사 혹은 예술 등을 포괄하는 연구들) 등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전체 프로젝트의 5%는 (7) 인구문제를 주된 연구 분야로 다루었다. 이외는 달리 오늘날은 인구학적 측면의 연구가 모든 프로젝트의 거의 1/4을 차지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⁴⁾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건대 아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처음 3년 동안 민주화, 국가변혁, 경제 위기 등의 문제가 동독에서 주된 연구 분야로서 지배적이었다면, 1993년에서 약 2000년 사이에는 동독에서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제도 변화,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의 재정 및 인력상의 이전, 모든 분야에서의 독-독 불평등, 문화적 소외현상 등이 그 중심을 구성하였다. 이후 (약 2000년~2010년) 혁신, 지속성, 인구, 시민사회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의식들 하에 경제, 민주 등의 문제가 기존 연구경향들을 몰아내지 않은 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중심

3) Ibid.; Kollmorgen, "Das Ende Ostdeutschlands? Zeiten und Perspektiven eines Forschungsgegenstandes"; Stephan Weingarz, *Laboratorium Ostdeutschland? Der ostdeutsche Transformationsprozess als Herausforderung für die deutschen Sozialwissenschaften* (Münster et al.: Lit-Verlag, 2003).

4) 구체적으로 Kollmorgen, "Zwischen nachholender Modernisierung und ostdeutschem Avantgardismus. Ostdeutschland und deutsche Einheit im Diskurs der Sozialwissenschaften," pp. 33~36.

연구 분야로 되돌아 왔다. 여기에 “새 독일”의 미래와, 지구사회 속에서
의 독일의 위상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강화되었다.⁵⁾ 총괄하건대 오
늘날까지(2012년) 독일 사회과학 및 역사학 분야에서 통일과 동독관련
주제로 약 75,000건이 출판되어 나왔다.⁶⁾ 그 중에서 1990년대는 동독연
구 및 통일연구가 연구프로젝트와 저술활동의 측면에서 최고조에 달하
는 시기였으며, 약 2005년부터는 이에 반하여 연구대상에 대한 의미가
분명하게 줄어들고 있다.

II. 이론적 다원성

통일연구의 담론들에 대한 두 번째 접근은 이론적-개념적 기반구축에
대한 문제, 즉 이론적 패러다임, 구체적 연구의 착안점들, 해석모델, 방
법론적 세트들 등에 관한 물음들이었다. 단지 간단히 살펴만 보아도 다
루는 소재들이 오늘날까지도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 드러난다. 여기서 부
분적으로만이라도 총 연구 분야에 대한 전체적 조망을 소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⁷⁾ 여기서는 그 대표적인 예로서 지난 20년 동안의 제도변화

5) Ibid.

6) Ibid., p. 32.

7) 다음 글들을 참조하십시오. Astrid Lorenz (ed.), *Ostdeutschland und die Sozialwissenschaften, Bilanz und Perspektiven* (Wiesbaden: Verlag Barbara Budrich, 2011); Kollmorgen, *Ostdeutschland, Beobachtungen einer Übergangs- und Teilgesellschaft* (Wiesbaden: VS Verlag, 2005); Kollmorgen, “Ostdeutschland und Theorien des Institutionenwandels”; Stephan Weingarz, *Laboratorium Ostdeutschland? Der ostdeutsche Transformationsprozess als Herausforderung für die deutschen Sozialwissenschaften*.

와 관련되어 중점적 연구대상으로서 진행된 이론적-개념적 접근들의 다양성에 대하여 정치-사회학적 및 정치-경제적 작업들에 초점을 맞춰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착안점들은 다음과 같다⁸⁾:

1. 신제도주의
2. 행위자 중심의 제도주의
3. 강요된-선택-관점
4. 역사적 제도주의
5. 신제도경제론
6. 베버주의적 제도이론
7. 시스템이론적-신진화론적 근대화연구
8. (행위자이론적) 전환적 접근
9. 문화주의적 접근법들

이러한 접근법상의 다양성을 되돌아볼 때 우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독 및 통일관련 연구의 다른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1990년 이후 사실상 모든 이론들이 다 동원되었고, 일반 정치학과 일반 사회학에도 역시 유용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한 학문적 조류가 1990년대 이래 획기적으로 그 중요성의 확대를 경험하였는데, 그것은 권력이론이

8) 지면과 전체적 조망의 문제상 여기서는 연구자와 연구물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나열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하여는 본인의 연구인 Kollmorgen, "Ostdeutschland und Theorien des Institutionenwandels"를 참고할 수 있다. 그밖에 "신제도주의"라는 용어는 위 테마 중 1~5를 포괄하는 일종의 상위의 학문적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분류에 대한 논의를 여기에서 심화시키지는 않는다. 다음 글을 참조. Uwe Schimank, "Neoinstitutionalismus," in Arthur Benz, Susanne Lutz, Uwe Schimank, Georg Simonis, eds., *Handbuch Governance: Theoretische Grundlagen und empirische Anwendungsfelder* (Wiesbaden: VS Verlag, 2007).

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비판-담론이론의 변형들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에서 삐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를 거쳐 노만 페어클러프(Norman Fairclough)에 이르는 오늘날까지도 거의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이 기초 학문과 통일연구 사이의 광범위한 수렴은 전체 기간(1990년~2010년)을 놓고 보자면 신제도주의(테마 1-5; 각주 8 참조)가 연구의 이론-개념적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세 번째로, 진행분석이 보여주는 바, 첫 번째 기간(1990년~1995년) 중 세 가지 ‘거대이론,’ 즉 신고전질서이론, 신진화근대화이론, 이행기 연구 관점일반 제도연구에서는 이미 확실하게 영향력을 잃었거나, 아니면 그 어떤 영향력도 갖지 못했던 반면 여기서는 영향력 있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물론 민주화와 일반적 전환연구에서 유용한 틀을 대표하는 것은 이론적 접근법들이기는 하다.⁹⁾ 이를 넘어 해석-행위이론적 연구접근법, 좀 더 정확히 말해 주체이론적 연구접근법¹⁰⁾ 지난 10년에서 15년 동안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⁹⁾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할 것. Kollmorgen, “Transformationstheorie auf neuen Pfaden? Zur Entwicklung der theoretisch-konzeptuellen Debatte über die postsozialistischen Umbrüche,” *Berliner Journal für Soziologie*, 21. Jg. (2), 2011c.

¹⁰⁾ 예를 들면 사회현상학이나 지식사회학 등과의 연결. 다음 글을 참조할 것. Wolfgang Engler, “Institution und Reflexion ein unversöhnlicher Widerspruch? Betrachtungen eines Außenseiters,” in Andreas Eisen and Hellmut Wollmann, eds., *Institutionenbildung in Ostdeutschland* (Opladen: Leske + Budrich, 1996); Michael Thomas, “‘Institution’ und ‘Lebenswelt’ oder ‘Ökonomische Rationalität.’” *BISS public*, 8. Jg. (25), 1998a.

III. 담론적 입장들과 연구의 전체 상황

만일 동독 및 통일연구에서 이론적 접근과 이론적 동력이 갖는 제한적 특성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면, 제도변화의 대표적 분야에만 한정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왜 특정 테마와 이론-개념상의 기초들이 특정 시기에 영역을 지배하였는가, 혹은 권력이론의 특정 변형들과 같이 오히려 주변화 된 채 남았느냐에 대한 개념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본인이 다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담론영역에서의 비판적-담론 분석적 재구성에 그 한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부르디외와 슈바브-트라프(Schwab-Trapp)의 논의를 끌어들여,¹¹⁾ 담론영역을 사회적 관계의 이론상 제한 가능한 영역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통해 ‘게임규칙’의 틀 안에서 특별한 지위와 자원, 전략 등을 이용한 담론적인 접근, 즉 그림과 텍스트의 생산 및 수용의 의미와 언어적 소통 등의 의미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물질적, 상징적 자본의 극대화에 다다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체를 포괄하는 담론의 틀을 바탕으로 특정한 “담론공동체”(Diskursgemeinschaft)와 이들의 중요한 “대변자들”(혹은 “담론 엘리트들”)이 각각의 지배적인 담론전략과 갈등선 및 상대적으로 안정된 담론적 체계모니 등에 따라 구체화된다. 담론은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에 놓이게

¹¹⁾ Pierre Bourdieu, *Homo Academicus* (Frankfurt/Main: Suhrkamp, 1988); Bourdieu, “Ökonomisches Kapital Soziale Kapital Kulturelles Kapital,” in ders.: *Die verborgenen Mechanismen der Macht* (Hamburg: VSA, 1992); Michael Schwab-Trapp, “Diskurs als soziologisches Konzept, Bausteine für eine soziologisch orientierte Diskursanalyse,” in Reiner Keller, Andreas Hirsland, Werner Schneider, Willy Viehover, eds., *Handbuch Sozialwissenschaftliche Diskursanalyse*, Bd. 1: Theorien und Methoden (Opladen: Leske + Budrich, 2001).

되는데, 이는 낡은 헤게모니의 해체와 새로운 헤게모니의 창출을 포함하는 변화의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제와 이론의 분포 현상에 대한 관찰을 넘어 사회정치나 사회적 지위 및 직업과 개인사에 따라 규정된 이익과 이데올로기 및 그것과 연관된 연구 프로그램들, 이론·방법론적 논거들, 이론적 쟁점들을 따져보는 것이다. 즉 필드에서의 담론이 갖는 입장과 헤게모니적 구조와 역동성 등을 포함한 그들 사이의 담론상의 권력관계 등을 다루고자 한다. 물론 이 비판적·담론분석적 프로그램을 하나의 강연의 범위 안에서 유사하게나마 설명해 내기란 어렵다.¹²⁾ 이 자리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선정한 네 담론 축을 바탕으로 영역들을 스케치하는 것인데, 이들 선택된 네 담론 축은 동독 및 통일 연구의 구조화에 있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들이다. 여기에서 축이란 큰 틀에서 서로 대극적이면서 부분적으로는 상충하기까지 하는 담론상의 입장을 통해 규정된다.

1. 근대화 축: 동독에서의 외부로부터 및 위로부터의 “뒤늦게 따라잡는 근대화” 대 내부와 아래로부터의 근대성

1990년대에 가장 유행했던 이 담론 내에서는 특히 근대화이론 및 시스템이론 분야를 지향하는 한 무리의 사회연구자 그룹이 있었다. 이들은 동독의 전환을 법률상의 편입과 이와 연결된 제도상의 이전, 그리고 기존

¹²⁾ 구체적인 것은 Kollmorgen, *Ostdeutschland, Beobachtungen einer Übergangs- und Teilgesellschaft* (Wiesbaden: VS Verlag, 2005)의 5장; Kollmorgen, “Zwischen nachholender Modernisierung und ostdeutschem Avantgardismus. Ostdeutschland und deutsche Einheit im Diskurs der Sozialwissenschaften”를 참조.

국가체제 등을 통하여, 구 서독을 모델로 뒤늦은 근대화 와 위에서부터 지휘된 체제전환의 예로 파악한다. 그에 따라 새로운 제도들에 대한 적용의 결과에서 나오는 문제들, 효율적인 자원분배와 성장 등이 주된 연구대상이 된다. 그 뒤에 숨겨진 논리에 따르면, 기존의 갖춰진 질서를 바탕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을 이상적으로 간주하며, 이 과정에서 모든 방해물들과 저항체들은 근대화프로젝트의 퇴행적 방해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담론입장은 무엇보다 서독 대학에서 자유보수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회연구자들에 의해 대표되었으며, 자신들 진영을 포함해 이와 병행하여 나온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지배적 해석 혹은 거대 서사의 지위를 획득하였다.¹³⁾

이 서술이 지배적 행위자들의 정치적 행동논리를 정확히 반영하였으며, 동시에 사회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행정 영역에서 지배적 해석의 틀로서 관철되었다고 하는 것이 담론구조상으로도 적절한 해석이다. 담론구조상 반대 입장 쪽에서는 우선, 동독의 부분적으로 변형된 대안적 근대화를 주장하면서¹⁴⁾ 단순한 “따라잡기”(Nachholen)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해 몇몇 연구자들은 나아가 부

13) 대표적 예로서 Wolfgang Zapf, “Der Untergang der DDR und die soziologische Theorie der Modernisierung.” in Bernhard Giesen and Claus Leggewie, eds., *Experiment Vereinigung. Ein sozialer Großversuch* (Berlin: Rotbuch, 1991)와 “How to evaluate German unification?,” Discussion paper FS III 00-404 (Berlin: WZB, 2000)를 들 수 있다.

14) Ulrich Beck, “Die Frage Nach der Anderen Moderne,” *DZfPh*, 39. Jg. (12), 1991; Dieter Klein, “Doppelte Modernisierung im Osten. Illusion oder Option der Geschichte?,” in Michael Brie and Dieter Klein, eds., *Umbruch zur Moderne* (Hamburg: VSA, 1991); Detlef Pollack, “Wie modern war die DDR?,” Discussion paper No. 4/01 (Frankfurt/O.: Frankfurter Institut für Transformationsstudien, 2001); Frank Ettrich, *Die andere Moderne. Soziologische Nachrufe auf den Staatssozialismus* (Berlin: Berliner Debatte, 2005).

본적으로는 동독이 근대화에 앞선 부분도 있었다면서, 오히려 서독의 탈 포드주의적이며 사회-생태적 근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에 따라 국가의 “이중의 근대화”¹⁵⁾라는 과제가 제기된다. 또한 첫 번째 입장이 근대화의 핵으로 이해하는, 서독 기본제도들의 동독에서의 실현 및 동독의 서독에 대한 사회문화적 적응이, 동독의 전환도, 독일의 통일도 끌어갈 수 없었다고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오히려 그보다는 만일 동독의 근대화가 개인과 사회집단들을 통해 밑으로부터, 그것도 광범위한 자발적 경험 공간의 보존, 그리고 새로운 기본제도들에 대한 자신들만의 고집스러운 전유 및 발전의 실현실습을 통해 진행되었었다면, 성공적이었을 것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⁶⁾ 이 담론공동체 소속 대부분이 구 동독출신자들이다. 그들은 대학에 몸담고 있는 엘리트에 속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사회민주주의 좌파에 속하거나 개혁사회주의를 지향한다. 그들의 행위이론과 주제이론의 강력한 지향을 추구하는 설명모델은 오랫동안 주변화 된 채 머물러 있었다. 1980년대에 독일에서 존재하였었고, 통일의 기반으로 기여했던 그 “독일 모델”이라는 것이 정작 그 스스로 개혁과 근대화가 필요했었음이 1990년대 말부터 더욱 더 분명해졌다. 이에 해당하는 잠재력과 가능한 길들에 대한 논의에는 동독도 점점 강도 높게 참여하였으며 그들의 정황, 행위, 문화 등이 이 새로운 근대화 과정을 위한, 예를 들면 노동시장, 교육, 젠더, 에너지 전환 혹은 새로운 지방 거버넌스 구조 등의 영역들에서 동원 가능한 원천으로 확인되었다. 나아가 몇몇 사람들은, 특정 영역에서는 서독과 동독 사이에 과거 주장되었던 근대성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¹⁵⁾ Klein, “Doppelte Modernisierung im Osten, Illusion oder Option der Geschichte?.”

¹⁶⁾ Ibid.; Rolf Reißig, *Die gesplante Vereinigungsgesellschaft* (Berlin: Karl Dietz, 2000); Michael Thomas, “Paradoxien in der deutschen Transformationsdebatte,” *Berliner Debatte Initial*, 9. Jg. (2/3), 1998b.

동독의 ‘아방가르디즘’을 말하기까지 하였다.¹⁷⁾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근대화 담론 가운데, 서로 상극의 가치관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좀 더 첨예화시켜 표현하자면, 이 입장들의 폭은 동독의 신자유주의의 선구자 역할에 대한 환영의 입장에서부터 복지자본주의적 산업화와 그 삶의 양식을 극복하는 발전에 대한 칭송까지 그 폭이 대단히 넓다. 비록 후자가 주로 동독인들에 의해 테마화되기는 하였지만, 출신에 따른 진영 간의 구분은 갈수록 불분명해지고 있다.¹⁸⁾

2. 식민화 축: “동독의 식민화” 대 스스로 선택한 “편입”. 서독의 연대 및 동독의 독자적 발전기회

무엇보다 통일의 첫 10년 간 지배적이었던 이 담론구조는 통일의 종류나 형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진행되었다. 즉 구 서독의 연방헌법 23

17) Bauer-Volke, Kristina and Ina Dietzsch (eds.), *Labor Ostdeutschland, Kulturelle Praxis im Gesellschaftlichen Wandel* (Berlin: Kulturstiftung des Bundes, 2004); Tanja Busse and Tobias Durr (eds.), *Das neue Deutschland, Die Zukunft als Chance* (Berlin: Aufbau-Verlag, 2003); Wolfgang Engler, *Die Ostdeutschen als Avantgarde* (Berlin: Aufbau-Verlag, 2002); Wolfgang Engler, *Bürger, ohne Arbeit. Für eine radikale Neugestaltung der Gesellschaft* (Berlin: Aufbau, 2005); Kollmorgen, *Ostdeutschland, Beobachtungen einer Übergangs- und Teilgesellschaft* (Wiesbaden: VS Verlag, 2005); Christoph Links and Kristina Volke (eds.), *Zukunft erfinden, Kreative Projekte in Ostdeutschland* (Berlin: Ch. Links Verlag, 2009); Eva Schäfer, Ina Dietzsch, Petra Drauschke, Iris Peinl, Virginia Penrose, Sylka Scholz, and Susanne Volker (eds.), *Irritation Ostdeutschland, Geschlechterverhältnisse in Deutschland seit der Wende* (Münster: Verlag Westfälisches Dampfboot, 2005); Woderich, Rudolf (ed.), *Im Osten nichts Neues? Struktureller Wandel in peripheren Räumen* (Münster: Lit-Verlag, 2007) 등 참조.

18) Ibid.

조에 따라 1990년 10월 3일을 기해 동독(즉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의 독일 연방공화국으로의 “편입”과 그 결과로서의 동서독 간의 지배 및 착취관계가 그것이다. 근거가 빈약하고 분명하게 맑스주의적으로 경도된 논의 입장은, 분명 몇몇 특정 명망가들도 동의하였으며, 급진좌파 진영을 대표하는 주변화된 서독 사회과학자들뿐 아니라 동독의 사회과학자들과 저술가들에 의해 대변되었다. 이들은 “편입” 및 이와 연결된 국가제도이전, 기업 이전 및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된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엘리트 이전을 서독의 국가엘리트와 대자본에 의한 동독의 “식민화”로 보았다.¹⁹⁾ 이들은 이러한 방식에 반대하여, 현실사회주의 사회가 가졌던 긍정적 특성들의 유지를 포함하여,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억압받는” 정치적 주체들(프롤레타리아와 중간계급)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지역에 기반한 전환을 호소하였다.²⁰⁾

이러한 견해와 개념성을 근본적으로 거부했던 지배적 반대 입장은 흥미롭게도 한편으로는 자유-보수주의적 정치 지향을 갖는 서독의 학자들 및 저술가들과 논쟁을 벌였다. 이들 서독 학자들은 동독인들이 이 방식을 스스로 선택했으며, 복지국가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보상과 서독인들의 광범한 연대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미 첫 15년 동안 동독으로 진행된 1조 유로를 훨씬 넘는 엄청난 재정적 이전이라는 것이다. 즉 이는 식민화나 착취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서독의 좌파들은 이를 부정한다. 비록 그들 중 일부는 통일의 측면들이 어느 정도는 식민화의 과정과 유사하리라고 예측하기는 했었

19) Wolfgang Dumcke and Fritz Vilmar (eds.), *Kolonialisierung der DDR, Kritische Analysen und Alternativen des Einigungsprozesses*, 3. Aufl (Münster: agenda, 1996); Stefan Bollinger, Ulrich Busch, Daniela Dahn, Fritz Vilmar (eds.), *Zehn Jahre Vereinigungspolitik: Kritische Bilanz und humane Alternativen* (Berlin: Dr. W. Weist, 2000).

20) Ibid.

다. 이와 함께 서독의 기능 엘리트들에 의한 동독 사회의 사회구조적 계층변화가 동독인들에 대한 거의 인종적 무시 수준에서, 또 사회문화적 적응에 대한 강제적 방식으로 이행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물론 이러한 테제는 첫 번째 반대 그룹의 논리와 함께 부정되어야 마땅한데, 그 이유는 연방공화국의 민주적 헌법, 특히 그 중에서 연방적 구조와 제한적 국가주권(즉 공동체기구조직들 중 비 국가적 행위 주체자들에 대한 높은 가치 부여)은 동독인들에게 “자신들의” 연방주와 지역 자치체에게 (부분적) 자치구조와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활동영역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금 연방공화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점점 더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²¹⁾

이에 따라 각기 다른 논리형태를 갖고 이해관계, 이데올로기나 출신에 따른 다양한 기원들을 갖는 헤게모니적 담론의 입장이 만들어졌다. 오늘날 식민화 테제는 소수의 급진 좌파 그룹과 구 동독 학문 엘리트 대표들을 제외하면 사회과학적으로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3. 문제발생의 축: 과거의 짐 (“동독의 유산-지배정권”) 대 1990년 이후의 잘못된 지휘 (“편입논리”, “뒤늦게 따라잡는 근대화”)

내용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구조와도 서로 관련을 맺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여기서는 과정진행의 요소들과 부분적으로는 이의

²¹⁾ 실례로서 Roland Czada and Gerhard Lehmbuch (eds.), *Transformationspfade in Ostdeutschland, Beiträge zur sektoralen Vereinigungspolitik* (Frankfurt/N.Y.: Campus, 1998); Kollmorgen, *Ostdeutschland, Beobachtungen einer Übergangs- und Teilgesellschaft*; Klaus Schroeder, *Die veränderte Republik, Deutschla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München: Bayerische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06) 및 그곳에 실린 여러 참고문헌 참조.

위기적 문제들을 그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입장은 거의 전적으로 서독의 자유-보수주의적 진영 지식인들에 의해 채워졌는데, 이들은 전환과 통일과정에서의 근본적 난관들은 일차적으로 동독의 국가 사회주의적 지배정권이 남긴 유산들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난관들은 물질적 특성(황폐해진 경제, 낡아빠진 인프라구조, 생태환경에 가해진 죄 등)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정신”적 특성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후자는 기업가정신의 모자람뿐만 아니라, 국가주의적 지향성이나 집단주의, 아울러 “내적 통일”에 대치되는 동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포괄한다.²²⁾

이와 반대로 두 번째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편입에 비판적인 동독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형식과 권력관계를 통일문제의 중심 요소로 받아들였다. 서독관계의 동독으로의 단순한 (“뒤늦게 따라잡는”) 이전 시도뿐 아니라, 전환과정에서의 서독 엘리트들의 이권정치를 통한 동독인들에 대한 권리박탈이 변혁뿐 아니라 통일도 어렵게 만들었고 또 지연시켰다. 이 논의는 무엇보다 1990년대 중반과 말, “심리적 거부현상과 이탈현상이라는 측면에서 “사회화가설 대 상황가설”이라는 제목 하에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²³⁾

22) Arnulf Baring, *Deutschland, was Nun?* (Berlin: Siedler, 1991); Schroeder, *Die veränderte Republik. Deutschla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Schroeder, *Ostdeutschland 20 Jahre nach dem Mauerfall. Eine Wohlstandsbilanz. Gutachten im Auftrag der INSM*, Berlin (unv. MS.), 2009.

23)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진 이 논의에 대해서는 Detlef Pollack, “Wirtschaftlicher, sozialer und mentaler Wandel in Ost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40/2000; Kollmorgen, *Ostdeutschland, Beobachtungen einer Übergangs- und Teilgesellschaft*; Rainer Land, “Fragmentierte Wirtschaftsstrukturen zwischen Deindustrialisierung, Stagnation und Innovation,” in *Berliner Debatte Initial*, 17. Jg. (5), 2006; Ulrich Busch, Wolfgang Kuhn, Klaus Steinitz, *Entwicklung und Schrumpfung in Ostdeutschland: Aktuelle Probleme im 20. Jahr der Einheit*

이 담론과 관련 여러 입장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 어떤 입장이든 확정적 헤게모니를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이는 아마도 무엇보다 양극을 중재하기 위하여 급히 개입한 학술적 시도 때문일 것인데, 이를 통해 극단적 입장을 담은 저술들은 주변화되었다.

4. 균등화 혹은 상이화의 축: “균등화”로서의 통일 대 상이화(와 지역화)로서의 통일

현재까지 진행된 또 다른 담론의 논의상황을 어느 정도 정리하자면, 1989년 동독과 서독 사이에 존재했던 엄청난 물적, 상징적 차이가 통일의 과정에서 지속되었는가, 아니면 나아가 더 커지기까지 하였는가,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사라졌는가 등의 문제이다. 처음 10년간 지배했던 하나의 입장은 앞의 1에서 제시했던 초기의 근대화 담론과의 조응 속에서, 다시금 보수적 지형의 서독 사회과학자들로 대표되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르면 중기적 기간에 걸친 동독과 서독의 균등화를 예상하였으며, 이는 경제뿐 아니라 사회구조, 정치 시스템, 나아가 사회문화(가치, 규범, 사회 환경)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질 것이었다.²⁴⁾

이와 충돌하는 두 번째 입장은 무엇보다 동독에서, 그러나 점차 서독의 사회과학자들에게도 나타나는 입장으로서, 1990년대 말부터 헤게모

(Hamburg VSA, 2009) 참조.

²⁴⁾ Baring, *Deutschland, was Nun?* Zapf, “Der Untergang der DDR und die soziologische Theorie der Modernisierung,” in Bernhard Giesen and Claus Leggewie, eds., *Experiment Vereinigung. Ein sozialer Großversuch* (Berlin: Rotbuch, 1991) 참조.

니적 위치를 점하게 되는 입장인데, 중요한 균등화의 동력을 놓치지 않으면서 첫 논리와 반대되는 차별화 과정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네 생성논리 혹은 형성논리들이 전개되었다.

우선 첫 번째로,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큰 격차를 갖고 출발한 동서독 간의 상이한 사회를 제시한다. 이 격차는 교통의 인프라구조, 건축, 기업의 자본력, 인구의 분산, 또한 사회구조, 인생역정의 실례, 심성들과 같이 결코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없는 물적, 상징적 유산들을 대표하며, 좋은 조건에서라도 그 극복에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 틀림없다.

두 번째로, 편입이라는 형식이나 이와 연계되어 있는 서독 행위주체들의 지배적 역할이, 비록 한편으로는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삼중의 이전, 즉 제도, 행위주체(특히 엘리트들), 재정 및 자산을 통해 기본적인 사회적 균질화의 동력을 실현시켰거나 혹은 지원하였다(제도 질서, 생산과 소비의 모범, 공공의 복지제공, 행위논리들 등). 다른 한편에서는 이 동일한 과정을 새로운 불평등 혹은 더욱 강화된 구 불평등의 증거로 제시한다. 그래서 동독은 경제적으로 서독이 “내적으로 조정하는 자체은행”으로 기능하였고, “저임금지역”과 서독산업의 매출시장, 즉 독일내의 자본주의적 내부 주변부로 기능한다.²⁵⁾ 그 중요한 결과는 무엇보다 모든 농촌지역의 인구급감을 이끈 동독으로부터의 대대적 이주였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서독으로의 인력 및 엘리트 이전을 통하여 사회구조상 동독에서의 사회적 계층변화가 발행하였다. 이를 통해 서독 출신이나 서독에 기반을 둔 상층계급(고위직 엘리트, 자산가) 등이 광범위하게 동독의 사회적 상층부를 형성한다. 정치적으로 동독의 지역정당(무엇보다

²⁵⁾ Rainer Land, “Fragmentierte Wirtschaftsstrukturen zwischen Deindustrialisierung, Stagnation und Innovation”; Ulrich Busch, Wolfgang Kuhn, Klaus Steinitz, *Entwicklung und Schrumpfung in Ostdeutschland: Aktuelle Probleme im 20. Jahr der Einheit*.

PDS, die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즉 동독 공산당 SED의 후속정당)은 연방차원에서 거의 어떤 영향력도 차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 서독 정당의 상층부에도 단지 소수의 동독인들만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처럼 동독의 이해와 정치적 기획들은 주변화되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패배자 집단”과 “패배자 지역”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동독인들을 독일 내 열등 집단으로 종속화시키는 경향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동시에 동독인에 대한 상징적 경멸의 경향을 자극하였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거의 없어지기 어려운 동독만의 특별 정체성 및 상호간의 문화적 충돌, 새로운 독-독 소외현상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 결과 1990년대 말 이후 독-독 불평등과 격차는 거의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반대로 몇몇 차원에서는 더욱 강화되기까지 하였다. 그 미래의 운명은 앞으로도 계속 열려있으며, 향후 몇 십 년간의 독일에서의 정치적 형성과정과 공론장에서의 소통과정에 달려있다.

세 번째로, 이미 1에서 논의했듯이 동독에서 지금까지의 통일과정에 대한 혁신적 답안으로서 새로운 사회적 고유성이 주의를 끌었는데, 동시에 이는 거꾸로 서독으로부터 동독을 떼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서독의 동독으로의 새로운 균등화의 동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예를 들면 여성노동, 유아 돌봄, 당과의 연결성 축소 혹은 세속화 경향 등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연방주들의 편입과 이어지는 정치-경제적 역동성(또한 전지구화의 맥락에서)을 통하여 독일 내의 새로운 지역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물론, 동서독 각각의 생활상태를 서로 차이 나도록 만들기는 하였다. 빈약한 지역의 절대 다수가 동독에, 그에 반해 부유하고 활동적인 지역은 서독에 있는 한에는 이들이 지속되는 동서독 상이화의 추가적 원천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독일 기본헌법이 요구하는 “생활상태의 동등한 가치”(기본법

72조)가 더 많이 실현되었고, 과거보다 더욱 강하게 “상이함 속에 통일”이라는 사고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동반하는 연대의식의 새로운 형태, 최종적으로 연방주와 지역들 간의 재정적 이전을 두고 씨름하는 상황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균등화 담론은 그런 한에서 분명히 그 논점이 이동하였다.²⁶⁾

IV. 요약 및 전망

의심할 바 없이 동독 및 통일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놓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연구대상을 경험적으로 넓고 이론적으로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주제 면에서나 이론에서도, 연구상 거의 손대지 않은 분야는 없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경우들에서 프로젝트 구성은, 예를 들어 행위주체의 시각, 장기 분석, 비교방법론 등 훨씬 복잡해졌다. 그런 한에서 지난 20년 동안의 주제와 이론의 여러 국면들은 한편으로는 일반 사회과학 이론과의 분명한 수렴을 보이고 있다.

²⁶⁾ 무엇보다 Tanja Busse and Tobias Durr (eds.), *Das neue Deutschland. Die Zukunft als Chance* (Berlin: Aufbau-Verlag, 2003); Jürgen W. Falter, Oskar W. Gabriel, Hans Rattinger, and Harald Schoen (eds.), *Sind wir ein Volk? Ost- und Westdeutschland im Vergleich* (München: Beck, 2006); Kollmorgen, *Ostdeutschland. Beobachtungen einer Übergangs- und Teilgesellschaft*, Christoph Links and Kristina Volke (eds.), *Zukunft erfinden. Kreative Projekte in Ostdeutschland* (Berlin: Ch. Links Verlag, 2009); Astrid Lorenz (ed.), *Ostdeutschland und die Sozialwissenschaften. Bilanz und Perspektiven* (Wiesbaden: Verlag Barbara Budrich, 2011); Reißig, *Die gespaltene Vereinigungsgesellschaft*; Hans-Joachim Veen, “Vereint, aber noch nicht wirklich eins? Ein Plädoyer wider den völkischen Rückfall,” *Deutschland Archiv*, 33. Jg. (2), 2000.

다른 한편 그들의 특성들이 단지 통일된 독일의 구체적인 사회-실천적 문제 상황에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담론상황과 담론체계모니로부터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여기에 통일연구의 탁월한 특성이 존재하는데 근대사회에서 정치-이데올로기적 진영들 사이의 시스템이론 대 행위이론, 혹은 질적 방법론 대 양적 방법론 같은 고전적이며, 다른 사회 정책적 문제영역과 연구영역들에서 잘 알려진 충돌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학문적 전통 및 연구프로그램상의 흐름들과 이론적 흐름들(시스템이론, 거대행위이론 혹은 질적 방법론 대 양적 방법론)도 보여준다. 나아가 아주 최근 시기까지의 다양한 구체적 담론영역에서, 비록 동서독 간의 서술방식논리나 설명논리, 가치논리들 간의 분열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이함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는 부분적으로 담론-구조상의 상이함으로까지 진행되면서, 거의 확실하게 지배적 위치에 있는 서독 담론공동체의 체계모니로 인하여 학문적 문제 뿐 아니라 사회 정책적 문제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담론권력으로서의 지위는 무엇보다 서독 사회과학자들의 대학연구에서의 대표성과 지배에 기인한다.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 통일 이후 첫 10~15년 사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던 엘리트 이전으로 인하여, 오늘날까지도 전 동독대학의 교수 중 동독 출신은 여전히 5%가 채 되지 못한다. 이에 반하여 동독의 신연방주에서는 공공 사회과학분야(저술분야까지 포함)와 수주연구가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양 분야에서는 통일이 테마로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의 지역적 강세에도 불구하고 동독 및 통일 연구는, 전체 학문분야에서 대학연구가 갖는 지도적 기능으로 인해 프로그램 상으로건 이론-개념상으로건, 규범제시의 측면에서건, 그 핵심에 있어 서독의 학문엘리트들에 의한 체계모니적 지배 하에 놓여있다.

서독 체계모니가 보여준 분열은 오랜 기간을 걸치면서 다른 많은 문제

를 가져왔다. 한편으로 이러한 분열은 입장들의 양극화와 그의 고착화를 가속시킨다. 학문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상호교환이나 서로간의 비판, 혹은 학습의 과정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졌다. 다른 한편 이를 통해 오늘날 까지도 다시 한번 첨예화시켜 말하자면 동독에 대한 인류학적 시각(물론 서독인들이 보는 시각)과 독일 전체의 발전에 관한 서독적 시각이 지배하고 있다. 거꾸로 분열과 서독의 해계모니는 동독 학문의 일부에서 대학 연구울타리 바깥세상에서의 고립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과시 및 순혈주의, 과격화 등을 촉진시킨다(상술한 바 있는 식민화담론을 참고). 종합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중요한 이론-개념이나 가치인정적인 측면들(권력, 담론, 대안적 근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혹은 개인사)을 사장시키고, 장기적으로 주변화로 나가며, 더 복합적 통찰의 기회와 잠재적인 학문혁신의 기회를 더욱 상실케 한다.²⁷⁾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배경으로 열린 변화와 통일과정의 사회과학적 공동작업이라는 기회를 약화시킨다. 지난 10년 전부터 전체 담론지형에서 이미 위의 담론 상황서술에서 지적했듯이 무게중심이 천천히 이동하였으며, 출신에 기인한 경계 짓기의 선이 불분명해지고, 상호간의 관점을 교환하는 학습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미래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미래를 위한 중요한 연구테마 – 취업노동사회, 인구발전, 세대교체, 지속성 혹은 지역 거버넌스 – 는 시작되었고 이미 그 성과가 나오고 있다.²⁸⁾

²⁷⁾ Bernhadr Giesen and Claus Leggewie (eds), *Experiment Vereinigung. Ein sozialer Großversuch* (Berlin: Rotbuch, 1991).

²⁸⁾ Ulrich Busch, Wolfgang Kuhn, Klaus Steinitz, *Entwicklung und Schrumpfung in Ostdeutschland: Aktuelle Probleme im 20. Jahr der Einheit*; Tanja Busse and Tobias Durr (eds.), *Das neue Deutschland. Die Zukunft als Chance*; Hans-Lüdiger Diel (ed.), *Bevölkerungsmagneten für Ostdeutschland. Zu- und Rückwanderung in die neuen Bundesländer und die Rolle der Hochschulen* (Wiesbaden:

■ 접수: 2013년 5월 6일 / 심사 : 2013년 6월 7일 / 게재확정: 2013년 6월 7일

VS-Verlag, 2010); Wolfgang Engler, Bürger, ohne Arbeit. *Für eine radikale Neugestaltung der Gesellschaft*; Raj Kollmorgen, Frank Thomas Koch, Hans-Liudger Dienel (eds.), *Diskurse der deutschen Einheit, Kritik und Alternativen* (Wiesbaden: VS Verlag, 2011); Christoph Links and Kristina Volke (eds.), *Zukunft erfinden. Kreative Projekte in Ostdeutschland* (Berlin: Ch. Links Verlag, 2009); Lorenz, *Ostdeutschland und die Sozialwissenschaften, Bilanz und Perspektiven*; Birgit Reißig, *Biographien jenseits von Erwerbsarbeit. Prozesse sozialer Exklusion und ihre Bewältigung* (Wiesbaden: VS-Verlag, 2010); Eva Schäfer, Ina Dietzsch, Petra Drauschke, Iris Peinl, Virginia Penrose, Sylka Scholz, and Susanne Volker (eds.), *Irritation Ostdeutschland, Geschlechterverhältnisse in Deutschland seit der Wende* (Münster: Verlag Westfälisches Dampfboot, 2005); Rudolf Woderich (ed.), *Im Osten nichts Neues? Struktureller Wandel in peripheren Räumen* (Münster: Lit-Verlag, 2007).

【참고문헌】

- Baring, Arnulf. *Deutschland, was Nun?*. Berlin: Siedler, 1991.
- Bauer-Volke, Kristina and Ina Dietzsch (eds.). *Labor Ostdeutschland, Kulturelle Praxis im Gesellschaftlichen Wandel*. Berlin: Kulturstiftung des Bundes, 2004.
- Beck, Ulrich. "Die Frage Nach der Anderen Moderne." *DZfPh*, 39. Jg. (12), 1991, pp. 1297-1309.
- Bollinger, Stefan, Ulrich Busch, Daniela Dahn, Fritz Vilmar (eds.). *Zehn Jahre Vereinigungspolitik: Kritische Bilanz und humane Alternativen*. Berlin: Dr. W. Weist, 2000.
- Bourdieu, Pierre. *Homo Academicus*. Frankfurt/Main: Suhrkamp, 1988.
- Bourdieu, Pierre. "Ökonomisches Kapital Soziale Kapital Kulturelles Kapital." in *ders.:Die verborgenen Mechanismen der Macht*. Hamburg: VSA, 1992. pp. 49-79.
- Busch, Ulrich, Wolfgang Kuhn, Klaus Steinitz. *Entwicklung und Schrumpfung in Ostdeutschland: Aktuelle Probleme im 20. Jahr der Einheit*. Hamburg VSA, 2009.
- Busse, Tanja and Tobias Durr (eds.). *Das neue Deutschland, Die Zukunft als Chance*. Berlin: Aufbau-Verlag, 2003.
- Czada, Roland and Gerhard Lehbruch (eds.). *Transformationspfade in Ostdeutschland. Beiträge zur sektoralen Vereinigungspolitik*. Frankfurt/N.Y.: Campus, 1998.
- Dienel, Hans-Lüdiger (ed.). *Bevölkerungsmagneten für Ostdeutschland. Zu- und Rückwanderung in die neuen Bundesländer und die Rolle der Hochschulen*. Wiesbaden: VS-Verlag, 2010.
- Dumcke, Wolfgang and Fritz Vilmar(eds.). *Kolonialisierung der DDR. Kritische Analysen und Alternativen des Einigungsprozesses, 3. Aufl.* Münster: agenda, 1996.
- Engler, Wolfgang. "Institution und Reflexion ein unversöhnlicher Widerspruch? Betrachtungen eines Außenseiters," in Andreas Eisen and Hellmut Wollmann, eds., *Institutionenbildung in Ostdeutschland*. Opladen: Leske + Budrich, 1996,

- pp. 321~336.
- Engler, Wolfgang. *Die Ostdeutschen als Avantgarde*. Berlin: Aufbau-Verlag, 2002.
- Engler, Wolfgang. Bürger, ohne Arbeit. *Für eine radikale Neugestaltung der Gesellschaft*. Berlin: Aufbau, 2005.
- Ettrich, Frank. *Die andere Moderne. Soziologische Nachrufe auf den Staatssozialismus*. Berlin: Berliner Debatte, 2005.
- Falter, Jürgen W., Oskar W. Gabriel, Hans Rattinger, and Harald Schoen (eds.). *Sind wir ein Volk? Ost- und Westdeutschland im Vergleich*. München: Beck, 2006.
- Giesen, Bernhard and Claus Leggewie (eds.). *Experiment Vereinigung. Ein sozialer Großversuch*. Berlin: Rotbuch, 1991.
- Hradil, Stefan. "Die Transformation der Transformationsforschung." *Berliner Journal für Soziologie* 6. Jg. (3), 1996, pp. 299~304.
- Klein, Dieter. "Doppelte Modernisierung im Osten. Illusion oder Option der Geschichte?," in Michael Brie and Dieter Klein, eds., *Umbruch zur Moderne*. Hamburg: VSA, 1991, pp. 9~34.
- Kollmorgen, Raj. "Das Ende Ostdeutschlands? Zeiten und Perspektiven eines Forschungsgegenstandes." *Berliner Debatte Initial*, 14. Jg. (2), 2003, pp. 4~18.
- _____. *Ostdeutschland. Beobachtungen einer Übergangs- und Teilgesellschaft*. Wiesbaden: VS Verlag, 2005.
- _____. "Zwischen nachholender Modernisierung und ostdeutschem Avantgardismus. Ostdeutschland und deutsche Einheit im Diskurs der Sozialwissenschaften." in Raj Kollmorgen, Frank Thomas Koch, and Hans-Liudger Dienel, eds., *Diskurse der deutschen Einheit. Kritik und Alternativen*. Wiesbaden: VS Verlag, 2011a, pp. 27~66.
- _____. "Ostdeutschland und Theorien des Institutionenwandels." in Astrid Lorenz, ed., *Ostdeutschland und die Sozialwissenschaften. Bilanz und Perspektiven*. Wiesbaden: Barbara Budrich, 2011b, pp. 293~314.
- _____. "Transformationstheorie auf neuen Pfaden? Zur Entwicklung der theoretisch-konzeptuellen Debatte über die postsozialistischen Umbrüche." *Berliner Journal für Soziologie*, 21. Jg. (2), 2011c, pp. 295~319.
- Kollmorgen, Raj, Frank Thomas Koch, Hans-Liudger Dienel (eds.). *Diskurse der*

- deutschen Einheit, Kritik und Alternativen*, Wiesbaden: VS Verlag, 2011.
- Land, Rainer, "Fragmentierte Wirtschaftsstrukturen zwischen Deindustrialisierung, Stagnation und Innovation," in *Berliner Debatte Initial*, 17. Jg. (5), 2006, pp. 27~38.
- Links, Christoph and Kristina Volke (eds.), *Zukunft erfinden, Kreative Projekte in Ostdeutschland*, Berlin: Ch. Links Verlag, 2009.
- Lorenz, Astrid (ed.), *Ostdeutschland und die Sozialwissenschaften, Bilanz und Perspektiven*, Wiesbaden: Verlag Barbara Budrich, 2011.
- Pollack, Detlef, "Wirtschaftlicher, sozialer und mentaler Wandel in Ost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40/2000, pp. 13~21.
- Pollack, Detlef, "Wie modern war die DDR?," Discussion paper No. 4/01, Frankfurt/O.: Frankfurter Institut für Transformationsstudien, 2001.
- Pollack, Detlef, "Wie ist es um die innere Einheit Deutschlands bestellt?"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30-31/2006, pp. 3~7.
- Reißig, Birgit, *Biographien jenseits von Erwerbsarbeit, Prozesse sozialer Exklusion und ihre Bewältigung*, Wiesbaden: VS-Verlag, 2010.
- Reißig, Rolf, *Die gespaltene Vereinigungsgesellschaft*, Berlin: Karl Dietz, 2000.
- Schäfer, Eva, Ina Dietzsch, Petra Drauschke, Iris Peinl, Virginia Penrose, Sylka Scholz, and Susanne Volker (eds.), *Irritation Ostdeutschland, Geschlechterverhältnisse in Deutschland seit der Wende*, Münster: Verlag Westfälisches Dampfboot, 2005.
- Schimank, Uwe, "Neoinstitutionalismus," in Arthur Benz, Susanne Lutz, Uwe Schimank, Georg Simonis, eds., *Handbuch Governance: Theoretische Grundlagen und empirische Anwendungsfelder*, Wiesbaden: VS Verlag, 2007, pp. 161~175.
- Schroeder, Klaus, *Die veränderte Republik, Deutschla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München: Bayerische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06.
- Schroeder, Klaus, Ostdeutschland 20 Jahre nach dem Mauerfall. Eine Wohlstandsbilanz. Gutachten im Auftrag der INSM, Berlin (unv. MS.), 2009.
- Schwab-Trapp, Michael, "Diskurs als soziologisches Konzept, Bausteine für eine soziologisch orientierte Diskursanalyse," in Reiner Keller, Andreas Hirsland, Werner Schneider, Willy Viehover, eds., *Handbuch Sozialwissenschaftliche*

- Diskursanalyse, Bd. 1: Theorien und Methoden*, Opladen: Leske + Budrich, 2001, pp. 261~284.
- Thomas, Michael, "'Institution' und 'Lebenswelt' oder 'Ökonomische Rationalität'." *BISS public*, 8. Jg. (25), 1998a, pp. 105~122.
- Thomas, Michael, "Paradoxien in der deutschen Transformationsdebatte." *Berliner Debatte Initial*, 9. Jg. (2/3), 1998b, pp. 104~116.
- Veen, Hans-Joachim, "Vereint, aber noch nicht wirklich eins? Ein Plädoyer wider den völkischen Rückfall." *Deutschland Archiv*, 33. Jg. (2), 2000, pp. 269~275.
- Weingarz, Stephan, *Laboratorium Ostdeutschland? Der ostdeutsche Transformationsprozess als Herausforderung für die deutschen Sozialwissenschaften*, Münster et al.: Lit-Verlag, 2003.
- Woderich, Rudolf (ed.), *Im Osten nichts Neues? Struktureller Wandel in peripheren Räumen*, Münster: Lit-Verlag, 2007.
- Zapf, Wolfgang, "Der Untergang der DDR und die soziologische Theorie der Modernisierung." in Bernhard Giesen and Claus Leggewie, eds., *Experiment Vereinigung. Ein sozialer Großversuch*, Berlin: Rotbuch, 1991, pp. 38~51.
- Zapf, Wolfgang, "How to evaluate German unification?." Discussion paper FS III 00-404, Berlin: WZB, 2000.

Discourses of German Unification and DDR—Research: A Critical Review after 20 Years

Raj Kollmorgen (Hochschule Gorlitz)

Abstract

The article deals with the debate on German unification and East Germany in the German social sciences since 1990. (1) First, it examines the (sub)disciplinary fields and themes of research. While problems of accession and economic crisis dominated the first years, institution building, social inequality and cultural alienation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were key topic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In the last decade, problems of economy and democracy have experienced a kind of revival, but under new perspectives emphasizing issues such as innovation, sustainability and demography, or all-German challenges and reform chances. (2) A subsequent analysis explores which discourse constellations and argumentative figures have prevailed the debate. Four central discursive axes are identified: (a) The modernization axis is (with the poles “catching-up modernization” from outside and top-down vs. modernity from inside and bottom-up); (b) the colonialization axis (West German colonialization of the GDR vs. self-elected accession, West German solidarity, and East German self-development); (c) the problem’s origin axis (legacies of the communist rule vs. mismanagement of the unification after 1990); (d) the equalization and differentiation axis (unification as equalization

vs. unification as differentiation). (3) Finally, the article discusses why those discourse axes with a clear tendency to discursive schisms have been established, who the advocates of the (ideal-typically) polar positions are, and what the consequences of the discursive schisms have been. The main result is that the discourse structure mirrors the persistent “schisms” in this social field, in which the West German academic science and its actors represent the discursive hegemon. This and the simultaneous subalternization of East German (particularly non-academic) social sciences, has caused sterile discursive confrontations and diminished the chances of innovative research agendas and approaches up until now.

Key Words: Unification, Discourse, Sociological Research, DDR, Modernisation

라이 콜모르겐 (Raj Kollmorgen).....

필리츠 대학 사회학과 교수. 1963년 라이프치히 출생하였으며, 예나 대학에서 1999년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2010년 막테부르크에서 교수자격 학위를 취득하였다. 2011년부터 예나 대학 사회학과에 재직하였으며, 2013년 봄학기부터 필리츠 대학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Ostdeutschland, BeobachtungeneinerÜbergangs- und Teilgesellschaft* (2005), *Transformationstheorien, PostsozialistischeKarriere und metatheoretischeKritik* (1999) 등이 있다.

역자: 이진일

독일 튀빙엔 대학교 역사학부에서 독일 현대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서양 지리학과 동양인식”(2012),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과 국사”(2013) 등이 있다.